

최근 국내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2009. 10. 29.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유병규

I. 국내 고용 시장 동향¹⁾

- 실물 경기 지표의 호전 속에 최근 고용 시장은 신규 일자리수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신규 일자리 감소세 둔화) 신규 일자리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고용 여건의 추가적인 악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 2009년 고용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1/4분기, 2/4분기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14.6만명, 13.4만명의 감소했으나, 7월 이후 호전되는 양상
 - 실업급여수급인원도 2009년 4월 45.8만명을 정점으로 2009년 6월 현재 43.6만명으로 감소함²⁾
 - 구인배수³⁾는 2009년 1월 0.27에서 8월 현재 0.55까지 상승
-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전환됨
 - (실업자수 감소) 경기 침체 후 지속적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100만 명에 근접하였으나 최근에는 80만 명대로 감소
 - 실업자수는 2008년 76.9만 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에 각각 90.8만명, 94.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9월 현재 82.6만 명에 이름
 - 실업률은 2008년 연간 3.2%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각각 3.8%, 3.8%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 9월 현재 3.4%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고용 동향 >

(단위 : 만명, %)

	2008					2009				
	연 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취업자 증감	14.5	20.9	17.3	14.1	5.4	-14.6	-13.4	-7.6	0.3	7.1
고용률	59.5	58.5	60.4	59.9	59.4	57.4	59.3	59.4	58.8	59.2
실업률	3.2	3.4	3.1	3.1	3.1	3.8	3.8	3.7	3.7	3.4
실업자수	76.9	80.1	76.7	75.2	75.7	90.8	94.3	92.8	90.5	82.6

자료 : 통계청.

1) 본 자료는 정유훈, “최근 고용 시장의 특징과 전망”,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9. 9. 4. 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2)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월호.

3) 구인배수는 신규구인인원을 신규구직자수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인당 현재 일자리수를 의미하는데 공공고용안전망인 Work-Net에 등록된 값으로 산출됨.

II. 국내 고용 시장의 문제점

○ (높은 체감 실업률⁴⁾) 통계청 발표 공식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임

- 통계청 공식 실업률에 나타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등 실질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를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3월 6.3%에 달했고, 9월 현재 5.7%로 공식 실업률보다 2.3% 포인트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쉬었음'을 실질 실업자로 파악한 광위의 체감 실업률은 2009년 3월 12.5%에 달했고, 9월 현재 10.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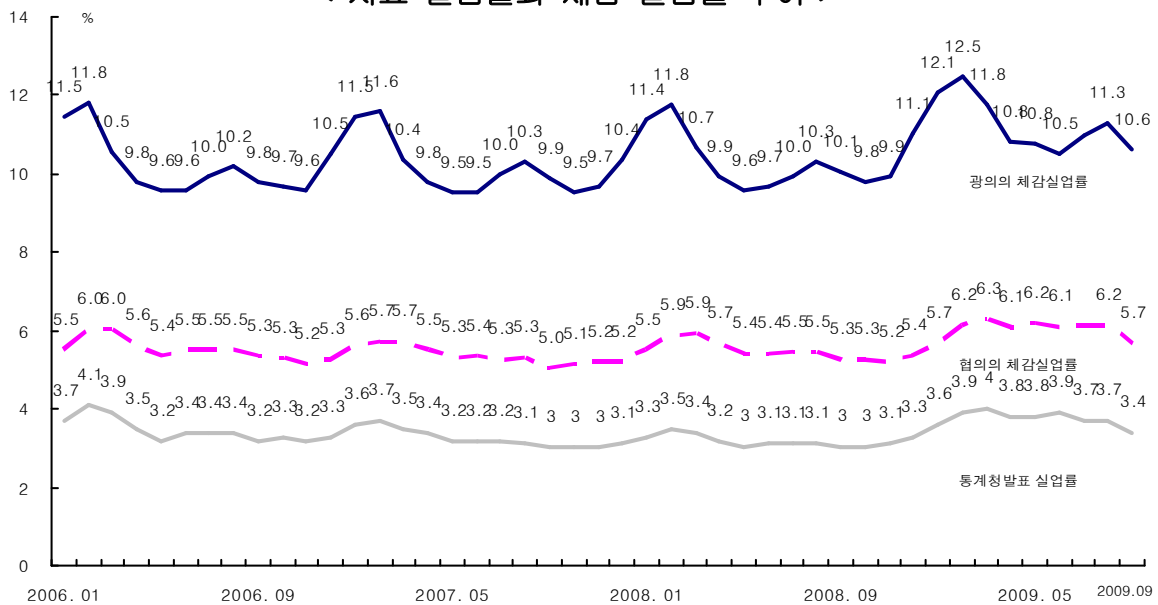
※ 1) 광위 체감실업률 = (실업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100

2) 중위 체감실업률 = (실업자 + 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자) × 100

3)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 공식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높은 것은 취업하지 못한 인구가 노동시장 밖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임

< 지표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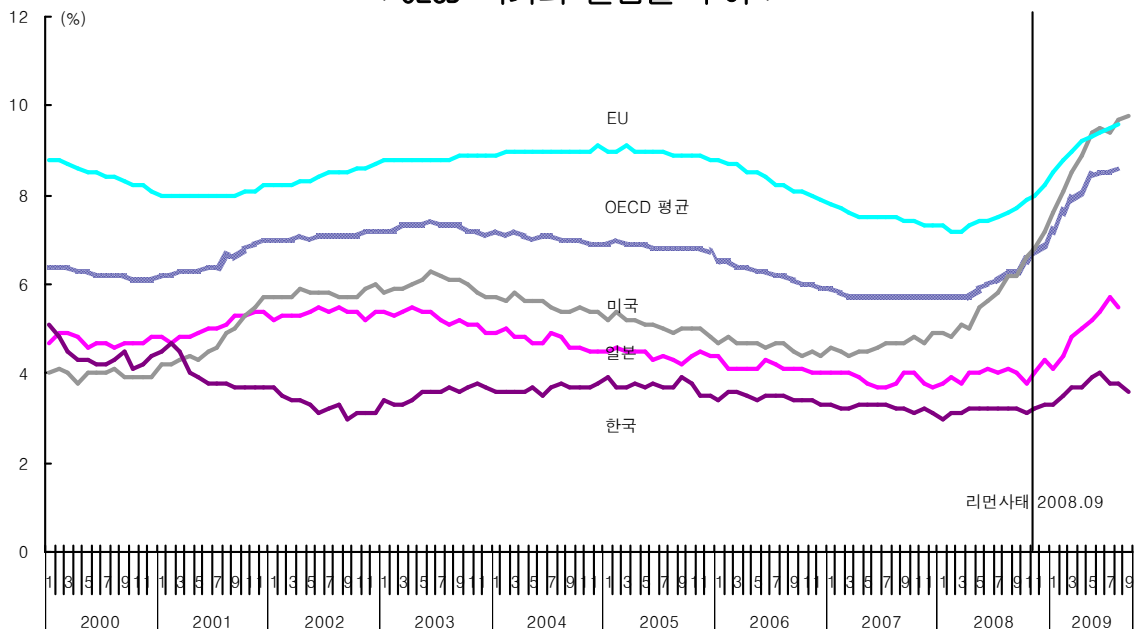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4) 현대경제연구원, '학력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 「경제주평」 2007.3.2.를 참조.

- 글로벌 경기침체로 **OECD** 각국의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해 경기 침체를 반영한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일자리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유지함
 - OECD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리먼사태가 일어난 2008년 9월 6.3%에서 2009년 8월 현재 8.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치)은 2008년 9월 3.2%에서 2009년 9월 3.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면, 미국, 일본, EU는 2008년 9월 각각 6.2%, 4.0%, 7.7%에서 2009년 7월 현재 9.4%, 5.7%, 9.5%로 상승함
- 극심한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 2008년 OECD 주요국의 고용률⁵⁾은 미국, 일본, OECD평균이 각각 70.9%, 70.7%, 66.5%인데 반해 한국의 고용률은 63.8%에 불과함
 -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3.3%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낮지만, 고용률은 30개국 중 22위로 매우 낮음

< OECD 국가의 실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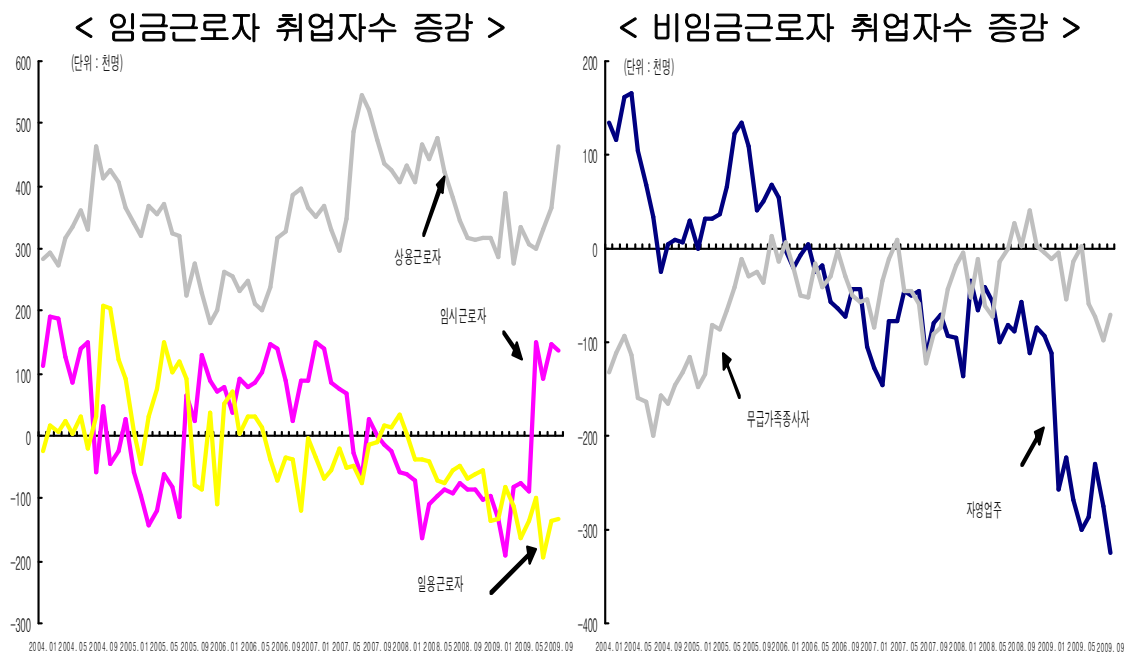


자료 : Reuters Econwins, 통계청.

주 : 각국의 실업률은 계절조정 실업률임.

5) OECD, Key employment statistics, www.oecd.org/employment/keystatistics을 참조.

- (종사상 지위별) 임금 근로자 중 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에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가 증가하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신규 일자리 수는 대폭 감소함
 - 일용 근로자는 2009년 9월 전년동월대비 13.4만 명 감소 지속 줄어들음
 -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를 통해 임시근로자는 2009년 8월, 9월 전년동월대비 각각 14.1만 명, 13.6만 명으로 지속 증가함
- (비임금 근로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수가 급감함
 - 비임금근로자는 2009년 9월 39.5만 명의 감소를 보이면서 전체 취업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음
 - 특히 자영업자는 2009년 5월 전년동월대비 30.1만명 대폭 감소한데 이어 8월, 9월에도 각각 27.6만 명, 32.4만 명의 감소를 기록함
- 기업과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유지 노력으로 상용직에 대한 고용조정보다 일용직 중심의 고용 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



○ (성별) 고용 여건의 악화가 특히 여성에 집중되면서 전체 일자리의 감소 중 여성 일자리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 경기 침체 과정에서 여성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함

- 2009년 상반기(1~7월) 여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수는 13.2만명의 대폭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의 월평균 신규 일자리수의 증가는 0.04만 명으로 소폭이나마 증가세 유지
- 2009년 9월에도 여성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 명이 감소한 반면, 남성 취업자는 9.7만 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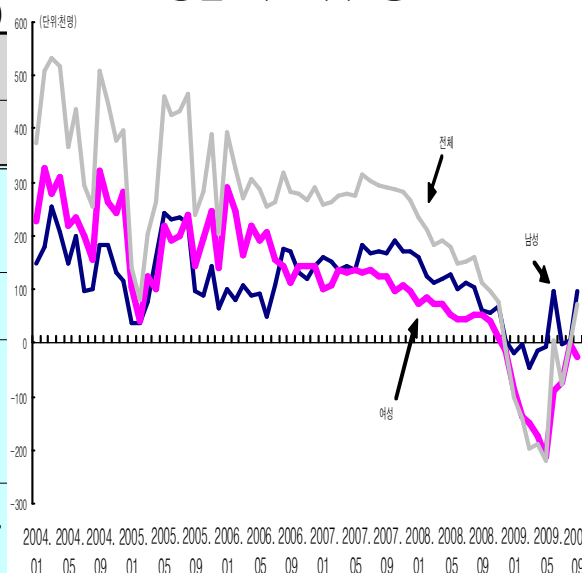
- 성별 연령별로 보면, 30대 여성의 신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함

- 2009년 상반기(1-7월) 여성 전체의 월평균 일자리 감소수가 13.2만 명 중 30대 여성의 일자리 감소수는 13.0만 명으로 98.5%에 달함
- 또한 동기간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로 인한 월평균 증가는 18.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단위:만명)

	2009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취업자 증감	-17.4	-21.1	-9.1	-7.3	-0.4	-2.6
30대	-15.9	-14.6	-12.9	-8.9	-6.5	-7.9
비경제 활동 인구	32.6	35.7	25.3	25.5	19.0	23.1
육아 가사	24.0	16.3	12.8	13.0	7.3	14.7

< 성별 취업자수 증감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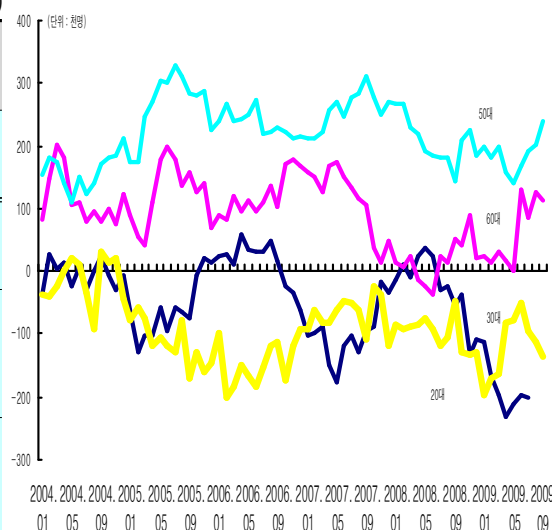
- (연령별)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주로 청년층인 **20~30대**에 집중되어 고용 감소로 이어진 반면, **50대 이상**은 고용 증가를 보임
- (청년층 고용 악화 지속)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30대 신규 취업자수는 2008년 7월 이후 15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2009년 9월 신규취업자수도 13.8만 명 감소
 - 20대 신규 취업자수는 2004년 12월 이후, 5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수도 13.7만 명 감소
- (고령층 고용 증가) 정부의 희망근로 등의 일자리 대책이 주로 고령층이 수혜를 입으며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50, 60대의 2009년 9월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24.0만 명, 11.3만 명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청년층에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불일치 현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
 - 2009년 9월 전체 실업자 82.6만 명 중 청년층 실업자는 32.0만 명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음
 - 2009년 9월 현재 전체 '쉬었음' 인구 138.4만 명 중 청년층(15-29세)은 29.6만 명으로 21.4%에 해당함

< 청년층 실업자 추이 >

(단위:만명)

	2008			2009		
	연간	2/4	4/4	2/4	8월	9월
계	769	767	757	943	905	826
15세 ~29세	315	327	300	351	352	320
20 대	293	306	278	328	329	312

<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



자료 : 통계청.

- (산업별) 제조업 및 건설업 부문은 고용 부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 대책에 따라 고용이 개선되고 있음
- 제조업과 건설업의 신규 일자리 수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했으나, 최근 정부 정책 등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음
 -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수의 감소폭은 2008년 연평균 -5.2만 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각각 -16.3만 명, -15.1만 명, -14.3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됨
 - 건설업의 신규 일자리수 역시 2008년 연평균 -3.7만 명에서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각각 -4.3만 명, -11.3만 명, -10.2만 명으로 감소
 - 반면 서비스업의 신규 일자리수는 2009년 7월, 8월, 9월 각각 25.0만 명, 28.2만 명, 27만 명 증가로 2008년 연평균 26.3만 명 수준을 상회함
 - 이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으로 서비스업 중 공공행정 부문이 7월, 8월, 9월 각각 31.9만 명, 32.1만 명, 32.6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산업별 신규 취업자수 >

(단위 : 만 명)

	2008					2009				
	연 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전체	14.5	20.9	17.3	14.1	5.4	-14.6	-13.4	-7.6	0.3	7.1
제조업	-5.2	-1.8	-3.4	-5.2	-10.3	-16.3	-15.1	-17.3	-13.8	-11.8
건설업	-3.7	-2.2	-4.6	-4.0	-4.1	-4.3	-11.3	-12.7	-10.5	-7.5
서비스업	26.3	30.7	30.0	26.2	18.7	4.7	15.4	25.0	28.2	27.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9.7	26.8	29.1	33.1	30.0	23.6	34.1	46.9	46.2	43.1
공공행정	4.4	4.5	6.9	4.3	1.7	3.4	14.3	31.9	32.1	32.6

자료 : 통계청.

○ (프리터 증가와 장년화) 한국에서 프리터⁶⁾ 수는 경기 부진 속 고용구조의 악화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프리터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프리터 비율이 상승하여 고용구조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전체 프리터 수는 2003년 8월 381만 명에서 2008년 8월 478만 명으로 97만명이 증가하여 2003년대비 25.5% 대폭 증가함.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프리터 비율이 10.2%에서 12.1%로 상승
- 한편, 전체 취업자 수는 2008년 8월 2,213만 명에서 2,362만 명으로 6.7% 상승.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2003년 59.2%에서 2008년 59.6%로 0.4%p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전체 프리터 비율은 10.2%에서 12.1%까지 상승
- 이는 생산가능인구 중 프리터 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국내 프리터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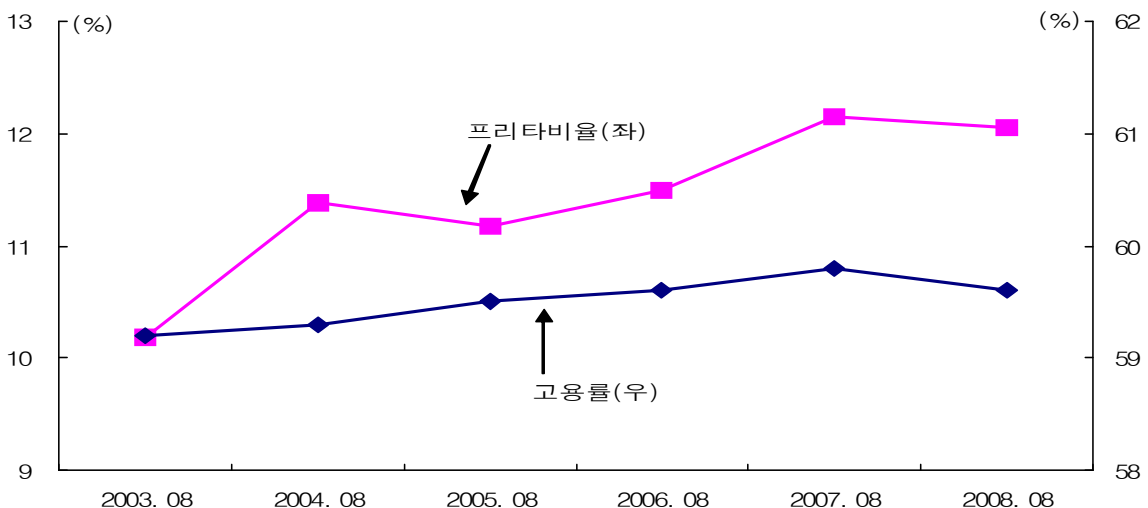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프리터수	3,809	4,300	4,295	4,463	4,769	4,780
(프리터 수 비율)	(10.2)	(11.4)	(11.2)	(11.5)	(12.2)	(12.1)

자료 : 통계청.

주 : 프리터 수비율=(프리터수)/(생산가능인구)로 정의됨.

< 고용률 및 프리터 비율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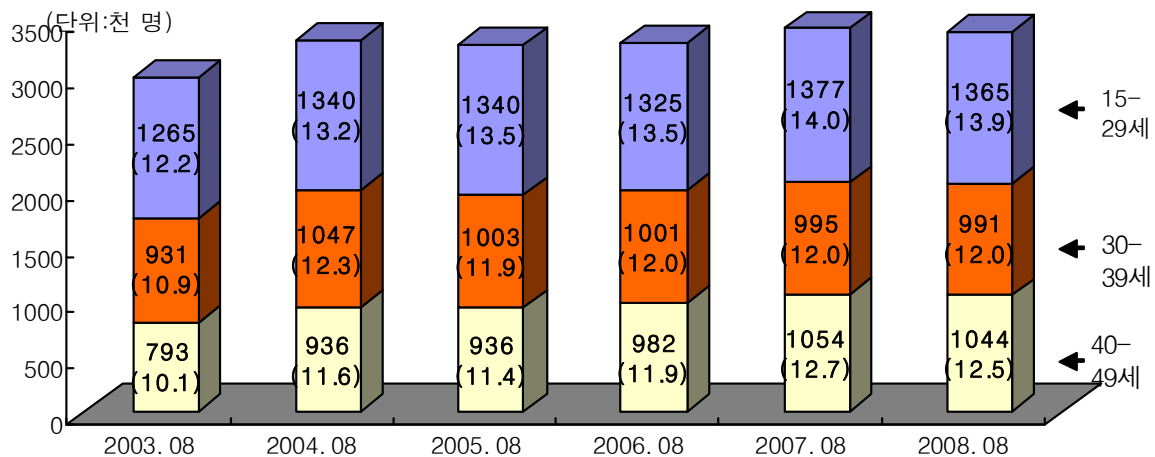
주 :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프리터비율=(프리터수)/(생산가능인구)로 각각 정의됨.

6) 프리터는 Free+Arbeiter의 합성어로 1987년 일본의 리크루트사가 구인잡지에서 '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회인 아르바이트'를 지칭하면서 사용된 용어임. 여기서는 프리터를, ①시간제·비전형1) 근로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②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통학자, 취업준비자 ③실업자의 합으로 정의함

○ (프리터의 장년화 추세) 정규직 취업의 곤란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부터 출발한 청년 프리터들이 30대 후반까지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장년층 프리터가 증가하고 있음

- 청장년층의 프리터 비율 증가 : 30~40 대의 장년층 프리터 비율도 증가
 -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율은 2003년 10.9%에서 2008년 12.0%로 1.1%p 증가한데 반해, 동 기간 고용률은 71.7%에서 72%로 0.3%p 상승에 그침
 - 40-49세 장년층의 프리터 비율은 2003년 10.1%에서 2008년 12.5%로 2.4%p 증가한데 반해, 동 기간 고용률은 76.0%에서 78.2%로 2.2%p 상승

< 청장년층의 프리터 수 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 안의 숫자는 생산가능인구 중 차지하는 프리터 수의 비율을 의미.

- 연령대별 취업자수 대비 프리터 수 증가 : 전체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취업자 수 대비 프리터 수의 비율도 증가 추세
 - 전체 취업자 대비 프리터 비율은 2003년 17%에서 2008년 20%로 3%p 증가
 - 15-29세의 취업자 대비 프리터 수의 비율은 2003년 27%에서 2008년 33%로 6%p 상승하였으며 30-39세 장년층의 프리터 수는 전체 취업자수 대비 2003년 15%에서 2008년 17%로 2%p 상승

< 프리터 수와 취업자 수의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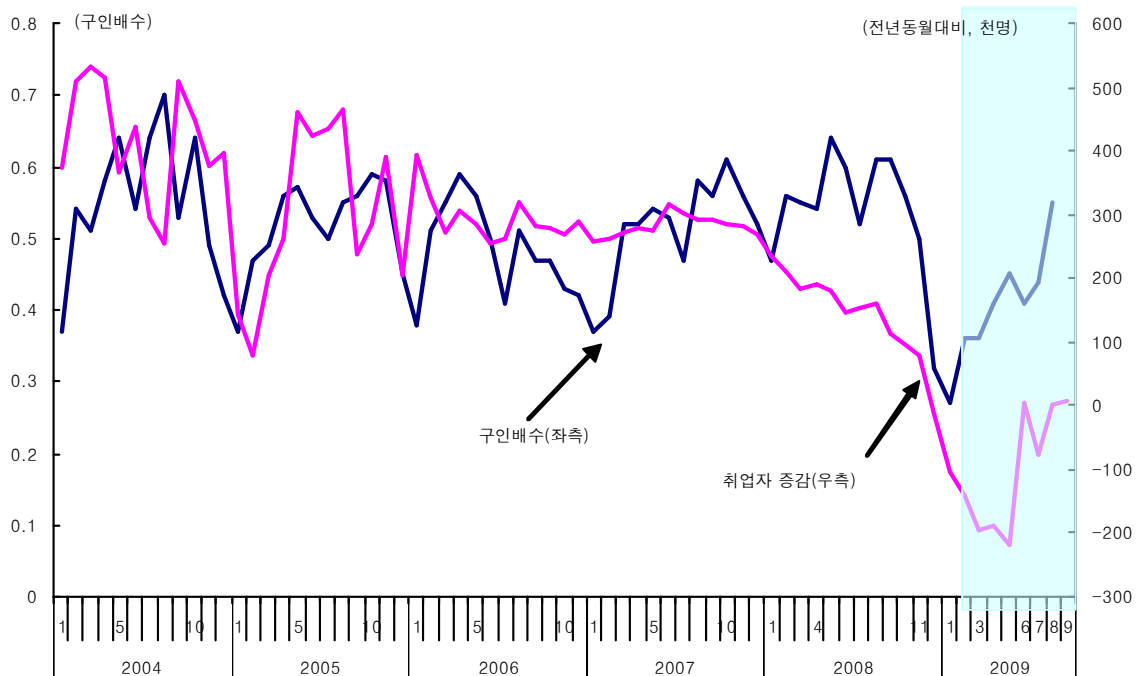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5-29세프리터수/15-29세취업자수(%)	27.4	29.9	30.4	31.2	32.7	33.4
30-39세프리터수/30-39세취업자수(%)	15.2	17.1	16.6	16.4	16.7	16.7
40-49세프리터수/40-49세취업자수(%)	13.2	15.2	14.9	15.4	16.4	16.0
전체프리터수/전체취업자수(%)	17.2	19.2	18.8	19.3	20.3	20.2

자료 : 통계청.

Ⅲ. 향후 고용시장 전망

- (개요) 향후 추가적인 고용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의 한계로 고용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구인배수와 신규 취업자수 등 고용 지표 상으로는 추가적인 고용 여건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고용지표 중 대표적인 선행지수인 구인배수와 이에 후행하는 신규 취업자수는 각각 추가적인 악화는 보이지 않고 있음
 - 구인배수는 2009년 1월 0.27을 최저점으로 8월 현재 0.55까지 상승하였고, 신규 취업자수는 2009년 3월 -19.5만 명을 최저점으로 9월 현재 7.1만 명까지 회복됨

< 구인배수 및 취업자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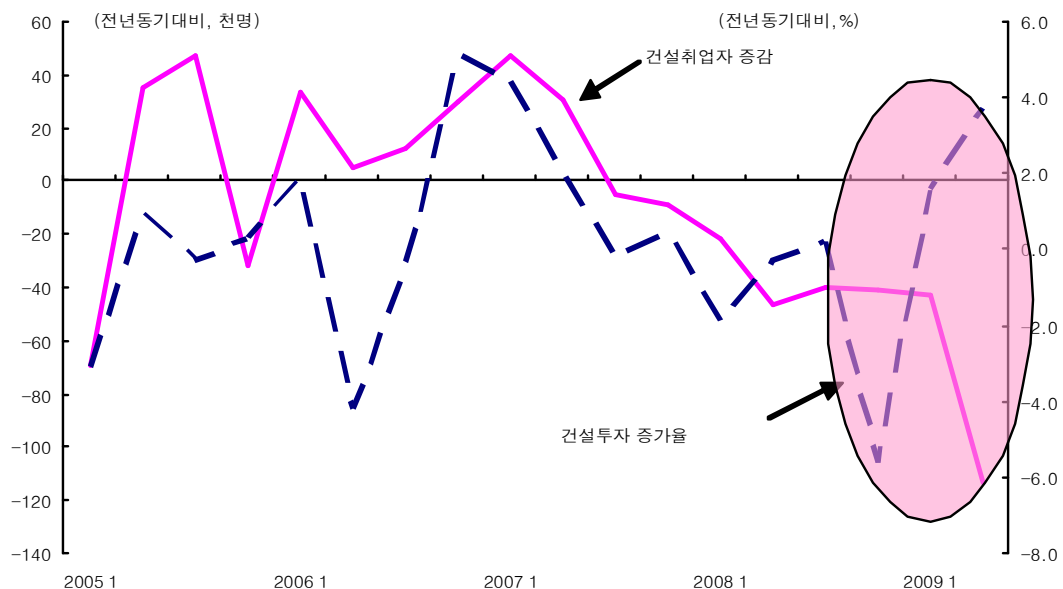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 (경기적 요인) 건설투자 및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고용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

- 공공부분의 건설 투자는 정부 재정 지출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6%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2/4분기에 2.4%까지 상승함
 - 그러나, 건설업 신규 취업자수는 2008년 4/4분기 4만 1,000명 감소에서 2009년에 들어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 민간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후에 고용 창출력이 높은 민간 서비스업의 고용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행정 등을 제외한 서비스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산업의 신규 취업자 수는 지속 감소

< 건설투자 및 건설업 취업자 증감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을 말함.

○ (기업 구조조정 요인)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순차적 구조조정의 진행 : 현재 대기업그룹·개별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됨

· 대기업그룹 : 2008년 하반기부터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시장평판 악화 및 유동성 우려 업체에 대해 자구계획 수립을 유도함

· 특히, 2009년 6월 1일 현재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이상의 대기업 그룹 중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9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

· 개별 대기업 : 여신 500억원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실시하여 433개 업체중 33개(C등급 22, D등급 11)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09.6.10)

· 중소기업 : 2009년 7월 15일 현재 861개 1차 평가대상 업체중 113개 업체(C등급 77, D등급 36)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추진 등 구조조정에 착수

-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향후 3차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시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7월말 현재 중소기업 중 9개사에 대해 기 워크아웃을 개시하고 있으며, 68개사는 해당업체와 채권은행간 워크아웃 추진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임⁸⁾

· 2009년 8월부터 여신 규모 30~50억원의 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2차 신용평가가 실시중임

7) 금융감독원,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보도자료, 2009.7.30.

8) 1차 신용평가대상은 여신 50억 이상의 외감대상 중소기업임.

- (정부 정책 요인) 정부 재정 지출 여력의 한계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확대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점진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일자리 대책 효과 소진 : 희망근로프로젝트, 고용 유지금 제도 등 직·간접적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점진적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206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정부는 2009년 상반기 당초 계획인 3.4조원을 넘어 3.6조원을 기집행하여 1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09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연간 계획안인 4.5조원의 80.0%를 집행함⁹⁾
 - 고용 유지 지원금 총 지원건수는 2009년 4월 6,673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7월 현재 4,785건으로 감소함¹⁰⁾
-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의 한계 :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해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6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수입 133조2,370억원, 재정지출 161조1,930억원으로 2009년 상반기 누적적자가 27조9,550억원에 달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366조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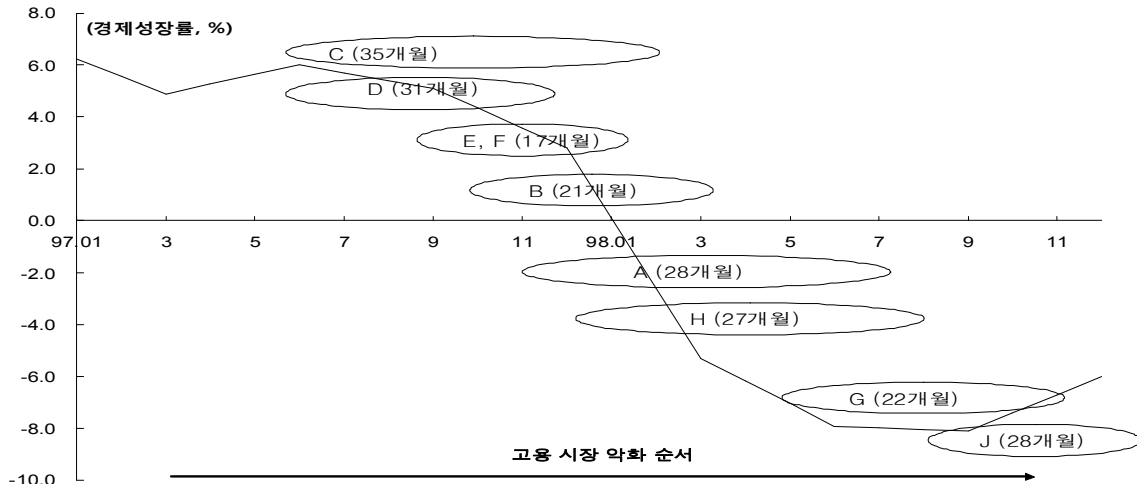
9) 기획재정부, “09년 하반기에도 재정의 경기활성화 노력 지속”, 보도자료, 2009.8.12.

10) 기획재정부, “2009년 7월 고용동향 분석”, 보도자료, 2009.8.12.

○(고용의 이력 현상) 노동 시장의 이력 현상으로 고용 회복 지연

- 고용이 외부 충격에 의해 축소될 경우 충격이 사라지더라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을 노동 시장의 이력 현상(hysteresis)이라 말함¹⁾
-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보다는 상용근로자가, 20~30대보다는 40~50대 근로자 층의 고용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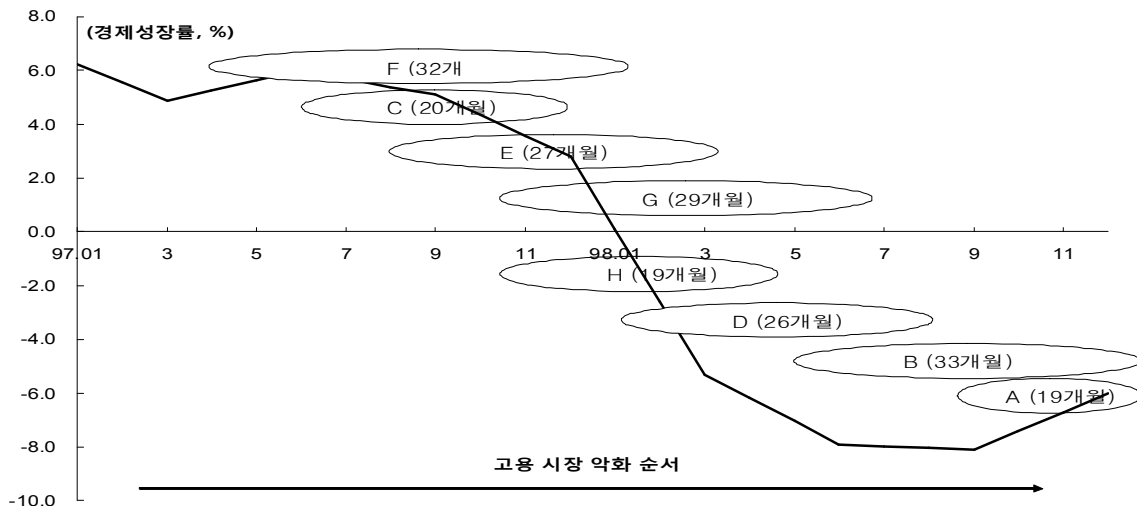
< 외환위기사 산업별 고용 위기 전이와 기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월별 자료로 변환한 것임

- 주 1) A : 제조업, B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C : 건설업, D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E : 숙박 및 음식점업, F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G : 금융 및 보험업, H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I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J : 교육서비스업, K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2) ()속은 고용 주기로 고용 여건 악화와 회복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Duration)임

< 외환위기사 직업별 고용 위기 전이와 기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성장률은 보간법(Interpolation)을 통해 월별 자료로 변환한 것임

- 주 1) A :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B : 전문가, C : 기술공 및 준전문가, D : 사무직원, E :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근로자 F :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G :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H : 단순노무직근로자

11) 김웅,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 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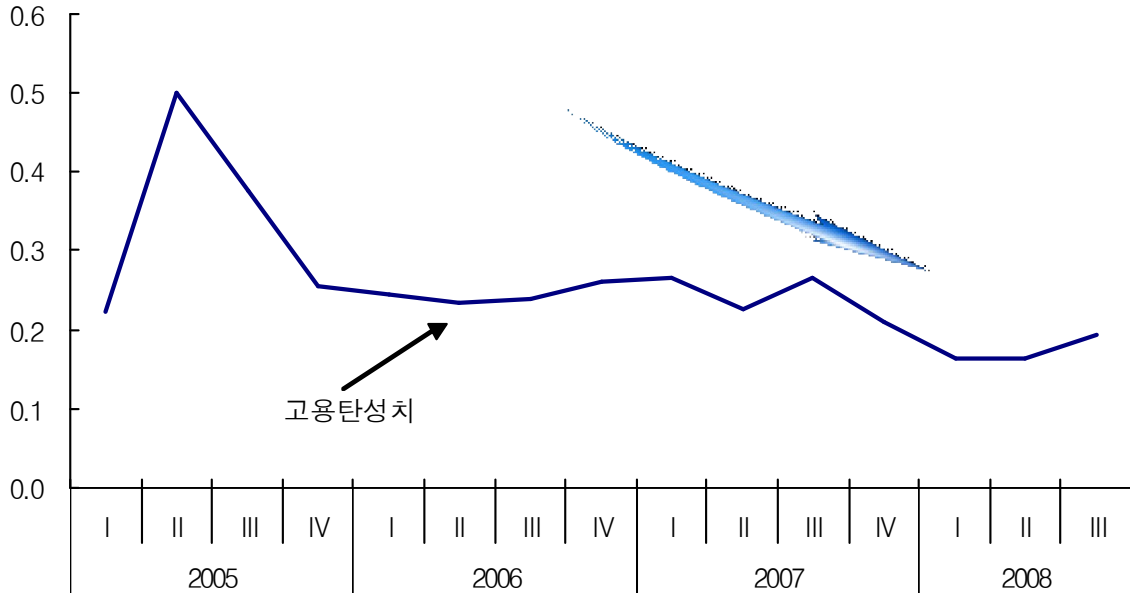
IV. 고용 시장 악화 배경과 대책

1. 배경

○ (고용 창출력 약화)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와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행에 따라 취업 기회가 감소하는 추세임

- 고용 창출력의 저하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면서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005년 2/4분기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증가율의 비율인 고용탄성치는 0.50에서, 2008년 3/4분기 고용탄성치는 0.19로 하락함. 이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취업자증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한편, 한국은행의 '2006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에 따르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전산업 고용계수는 2000년 7.0명에서 2005년 6.1명, 2006년 5.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고용탄성치 감소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중소기업청('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2008.6.11)의 고용탄성치 추정방법을 사용.

- (학력 인플레이에 의한 일자리 불일치) 노동 공급측면에서 대부분의 신규 취업자가 대졸자 출신이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어 미스매치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

- 학력인플레이 현상의 심화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이 2008년에는 83.8%까지 상승하였고,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율도 72.9%에 달함
-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1980년, 1990년 각각 27.2%, 33.2%에 불과했으나, 1995년 51.4%로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였고 2000년, 2008년 각각 68.0%, 83.8%로 급격히 증가함
- 특히, 취업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율은 1990년 8.3%에서 2000년 42.0%로 증가하였고, 2008년 현재 72.9%에 달함

< 대학 진학률 추이 >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대학 진학률(%)	33.2	68.0	82.1	82.1	82.8	83.8
전문계 고교	8.3	42.0	67.6	68.6	71.5	72.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중소기업의 인력난 : 노동부의 인력수요동향조사에 따르면, 격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2008년 상반기/하반기 중소규모의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소규모일 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부족인원은 2008년 상반기 20.6만명에 이르고, 하반기에도 15.6만명에 이름
- 특히, 5인 이상 9인 이하의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2008년 상반기 6.2만명에 이르러 부족률이 4.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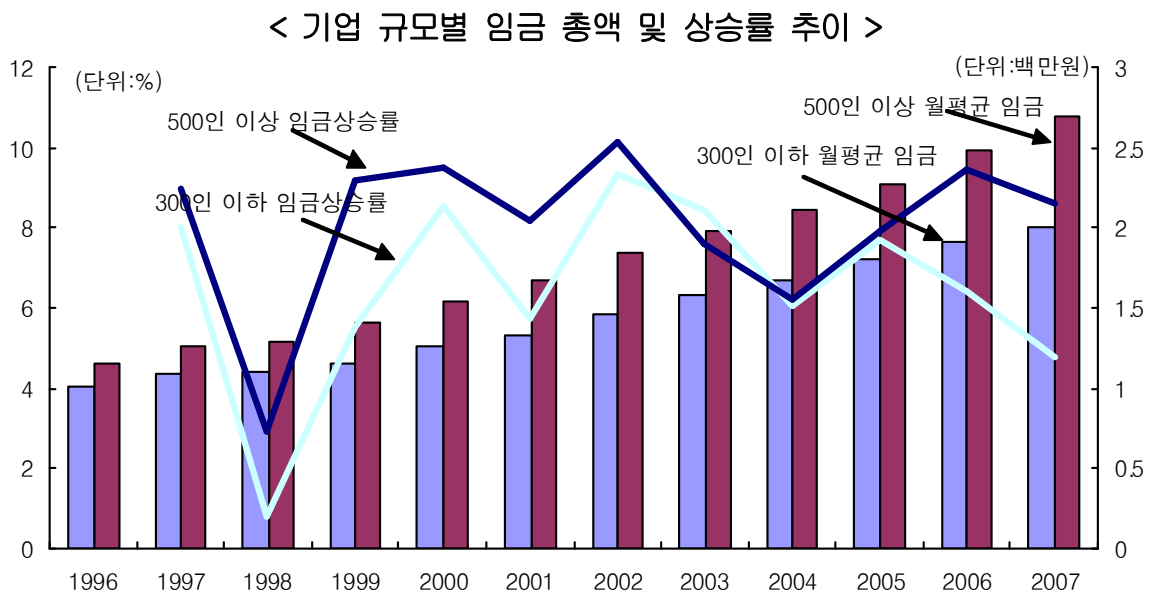
< 중소규모 기업의 인력난 >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채용인원(명)	부족인원(명)	채용인원(명)	부족인원(명)
중소규모(300인미만)	430,196	205,659	284,971	156,112
1규모(5~9인)	101,324	62,017	57,945	48,768
2규모(10~29인)	138,771	68,657	88,999	49,301
3규모(30~99인)	111,555	46,645	83,722	37,748
4규모(100~299인)	78,546	28,340	54,305	37,748

자료 : 통계청.

○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심화)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심화시키고 있음

- 규모별 임금 격차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인당 평균 임금의 격차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커져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격화시킴
- 1997-2007년 사이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8.1%인데 반해, 동 기간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6.5%에 불과함
-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126만원에서 2007년 201만원으로 75만원 증가한 것에 비해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2000년 1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15만원 증가함



자료 : 통계청.

주 : 300인 이하 규모의 임금총액과 임금상승률은 각각 1규모(5-9인)에서 4규모(100-300인)까지의 각 규모별 가중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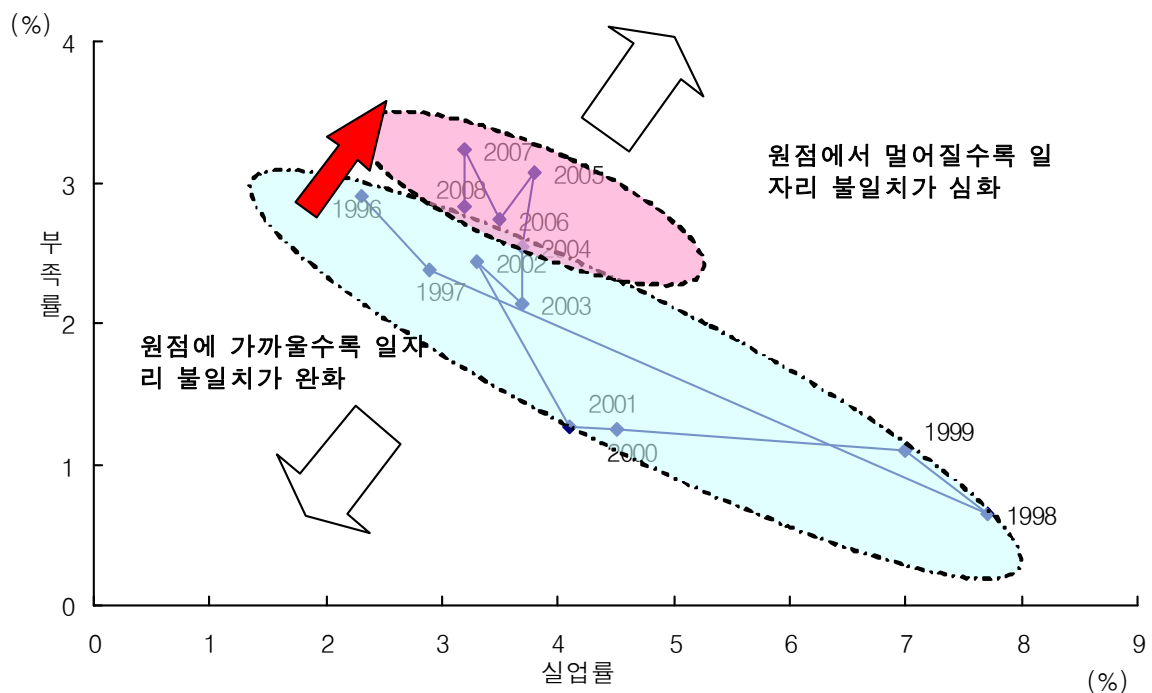
○ (고용 정보 시장의 인프라 부족) 노동 시장의 인프라 부족으로 공공, 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할이 미흡함

- 인프라의 부족 : 통계청의 2008년 5월의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등을 통한 경우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 >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 본 일자리 불일치 현상 추이

- (일자리 불일치 현상의 심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로 인해 인력수요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음
- 일자리 불일치에 따른 프리터의 증가 : 프리터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진입단계에서 학력간, 기업규모별 불일치에 따른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에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2004년 이후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¹²⁾이 이전보다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부족률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써 일자리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최근 베버리지 곡선 추이 >



자료 : 통계청, 노동부.

12) 베버리지 곡선은 인력수요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노동력과 일자리(job)간의 노동시장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것임. 예를 들어, 성장 산업에서는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사양 산업에서는 인력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자를 방출하지만 사양산업에서 방출된 인력과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출한 인력이 성장산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력 부족률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면, 베버리지 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함. 자세한 내용은 조영철, 최영섭(1999), 산업구조변화와 직업불일치, 경제학연구 제47집 제1호, 을 참조.

2. 대응 과제

- (고용 유지 지원 지속)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확대와 연장, 대량 해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를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실직자의 재취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전국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직업 상담·소개·훈련, 고용보험의 확충, 직업 훈련 등을 생활 보장이 필요
 - 신규 채용자의 내정 취소 사업주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일자리 질의 제고) 기업 투자 증대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 집중 육성을 통해 전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함
 -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층 또는 장년층의 프리터화를 방지해야 함
- (부문별 대책 수립) 연령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청년층 일자리 대책 : 청년인턴제도 등은 정부의 임금지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정부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정보 시스템 분야 등 고용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일자리 네트워크를 강화

- 여성 일자리 창출 : 고용 시장에서 퇴장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가사 및 육아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보육 시설의 양적·질적인 확충과 가정과 직장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 제도 및 재택 근무 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함
-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의 전직 및 재취업 유도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취약계층의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기간 중의 생계 지원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함
 - 실직자가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리지 않도록 실직자 전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정보시스템 강화 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 연계)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 시스템 및 기업의 연계를 지원·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이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로 프리터 후보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 고도화에 적합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노동 수요와 부합되도록 기존의 제조업 기술자 양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부문의 숙련 노동 육성 중심으로 직업 교육 체계를 수정해야 함
- 일본 정부는 ‘청년 자립·도전전략회의’를 설치하고, NEET족이나 프리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의 교육과정평가원(QCA,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은 2004년 9월 학기부터 14세 이상인 중등학교 고학년생(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연계 교육’을 실시
- (사회 전체의 노력 필요) 프리터 증가의 억제 및 감소를 위해서는 ‘참여·자립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
- 가정 : 자녀의 프리터화 방지를 위해서는 부모 및 가족의 역할 재정립을 통

한 자녀의 독립심 배양이 중요함

- **학교** :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조기 직업 체험 등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현실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체제 마련이 필요함
- **지역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하며,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고용 관련 DB 세분화)**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연령·교육정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고용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취업 희망자와 채용 희망 기관들에 대한 상세한 고용 관련 조사는 물론 이를 DB화하는 등 고용 관련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완
- 정부 및 관련 공공 고용 정보 제공 기관들에 대한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전문 취업알선기관 육성의 내실화가 필요함